





[정답] ③

1. 영역: 문장의 구조

2. 유형: '안은문장'과 '이어진 문장'의 구별

- ③ 종속 이어진 문장: 봄이 되+니까(종속적 연결어미)/온 강산에 꽃이 가득 피었다.
- ① 관형절 안은문장: '예쁜 소녀→소녀가 예쁘다'(주어가 생략된 관계관형절)  
서술절 안은문장: 철수는/소녀가 자꾸 생각났다.(서술절)
- ② 목적어 명사절 안은문장: '비가 오기를'
- ④ 목적어 명사절 안은문장: '지금 중요한 때일'
- ⑤ 간접 인용절 안은문장: '김 선생님이 돌아가셨다고'

문 6. 다음 단어들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외래어 표기의 원칙은? 2014 서울시 9급

콩트, 더블, 게임, 피에로

- ①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외래어를 표기할 때는 받침으로 ㄱ, ㄴ, ㄷ, ㄹ, ㅁ, ㅂ, ㅅ, ㅇ 만을 쓴다.
- ③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음에 가깝도록 둘 이상의 기호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④ 이미 굳어진 외래어도 발음에 가깝도록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⑤ 원음에 더욱 가깝게 적기 위해 새로 문자나 기호를 만들 수 있다.

[정답] ①

1. 영역: 외래어 표기법

2. 유형: 용례를 통해 외래어 표기의 기본 원칙 파악

- ① '콩트, 떠블, 께임, 뵀에로'로 표기하지 말라는 것은 파열음 표기에서 예사소리나 거센소리를 된소리로 표기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.

문 7. 다음 문장들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모호한 문장들이다. 모호성의 이유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? 2014 서울시 9급

- ① 내가 지난번에 만난 친구의 동생이 오늘 결혼을 한다고 한다.
- ② 그 연속극은 가정에 충실한 주부와 남편에게 불쾌감을 주었다.
- ③ 나는 국어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을 찾아뵈었다.
- ④ 아내는 남편보다 아들을 더 좋아했다.
- ⑤ 그 배는 보기가 아주 좋았다.

[정답] ⑤

1. 영역: 중의적 표현

2. 유형: '어휘적 중의성'과 '구조적 중의성'의 구별

- ⑤만 '어휘(단어)'를 통한 중의적 표현이고, 나머지는 '구조(문장)'를 통한 중의성이다.
- ⑤ 어휘적 중의성: 동음이의어 '배'는 '腹, 船, 梨' 중 어느 것인지 모호하다.
- ① 수식어의 수식 범위에 따른 중의성: 관형어 '내가 지난번에 만난'이 수식하는 범위가 '친구'인지 '친구의 동생인지' 모호하다.
- ② 수식어의 수식 범위에 따른 중의성: 관형어 '가정에 충실한'이 수식하는 범위가 '주부'만인지 '주부와 남편' 모두인지 모호하다.

- ③ 공동격 구문의 중의성: 내가 찾아본 분이 ‘국어 선생님’과 ‘교장 선생님’ 각각인지, ‘국어 선생님’과 함께 ‘교장 선생님’을 의미하는지 모호하다.
- ④ 비교 구문의 중의성: 아내가 아들을 좋아하는 정도가 남편보다 더하다는 말인지, 아내가 남편과 아들 중 아들을 더 좋아하다는 말인지 모호하다.

문 8. 다음 문장에 쓰인 수사법과 같은 수사법이 쓰인 것은? 2014 서울시 9급

우리 옹기는 양은 그릇에 먹살을 잡히고 플라스틱류에 따귀를 얻어맞았다.

- ① 그는 30년 동안 입고 있던 유니폼을 벗고서 붓을 들기 시작했다.
- ② 지금껏 역사를 굶어본 강물은 말없이 흐른다.
- ③ 돈을 잃는 것은 적게 잃는 것이지만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.
- ④ 보고 싶어요, 붉은 산이, 그리고 흰 옷이.
- ⑤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 저어 오오.

[정답] ②

1. 영역: 수사법

2. 유형: 예시문과 동일한 수사법 파악

예시문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비겨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‘의인법’이다.

- ② 의인법: “역사를 굶어본 강물은 말없이 흐른다.”
- ① 환유법: ‘유니폼’이나 ‘붓’은 ‘그것과 관련된 직업’을 의미하는 말.
- ③ 열거법과 점층법: 돈(적게)<명예(많이)<건강(모든)
- ④ 도치법과 환유법: ‘붉은 산’과 ‘흰 옷’은 우리나라의 속성을 의미하는 환유법
- ⑤ 은유법 : 원관념(내 마음)과 보조관념(호수)을 일치시킴.

문 9. 다음 글에 이어질 내용으로 부적합한 것은? 2014 서울시 9급

인간은 흔히 자기 뇌의 10%도 쓰지 못하고 죽는다고 한다. 또 사람들은 천재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조차 자기 뇌의 15% 이상을 쓰지 못했다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이 말에 신빙성을 더한다. 이 주장을 처음 제기한 사람은 19세기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로 추정된다. 그는 “보통 사람은 뇌의 10%를 사용하는데 천재는 15~20%를 사용한다.”라고 말한 바 있다. 인류학자 마가렛 미드는 한발 더 나아가 그 비율이 10%가 아니라 6%라고 수정했다. 그러던 것이 1990년대에 와서는 인간이 두뇌를 단지 1% 이하로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. 최근에는 인간의 두뇌 활용도가 단지 0.1%에 불과해서 자신의 재능을 사장시키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제기됐다.

- ① 인간의 두뇌가 가진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연구해야 한다.
- ② 어른들도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- ③ 학교는 자라나는 학생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.
- ④ 인간의 두뇌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.
- ⑤ 어린 시절부터 개성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기교육을 실시해야 한다.

[정답] ⑤

1. 영역: 추론적 독해

2. 유형: 내용의 추론

제시문은 ‘인간은 자신의 두뇌의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.(주지)’와 학자들의 주장을 인용하여 구체화하고 있다. 결국 제시문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‘주지’에 대한 구체적 원인이나, 대상, 활용 방안 등을 제시해야 한다.

⑤ ‘두뇌 능력의 활용’과 ‘조기 교육’은 연관성이 있으나, ‘인간의 개성’은 통일성을 해치고 있으므로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.

- ① 구체적 원인 파악
- ② 구체적 대상 제시: 어른
- ③ 구체적 해결 방안: 학교(학생)
- ④ 구체적 해결 방안: 전체 결론

문 10. 다음 예문에서 밑줄 친 부분이 맞춤법에 맞는 것은? 2014 서울시 9급

- ① 올해 신입생 입학율이 저조하다.
- ② 네 기사가 어린이란에 실렸다.
- ③ 알고도 모르는 채하였다.
- ④ 남술의 처는 또 한번 웃기 잘하는 그의 입술을 방끗 벌리었다.
- ⑤ 껍질채 먹는 것이 몸에 좋다.

[정답] ④

1. 영역: 한글맞춤법

2. 유형: 규칙의 이해

④ 방끗: 입을 약간 벌리며 소리 없이 아주 밝고 가볍게 웃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.

방긋(약한 말)/병긋(큰 말)/빵긋(센 말)

① 입학률: 두음법칙. ‘률’과 ‘률’이 어두 이하인 경우 ‘모음’이나 ‘ㄴ’받침 아래에서만 예외를 적용하여 ‘열, 율’로 적는다. ‘입학률’은 ‘ㄱ’받침이므로 원칙대로 본음을 적어야 한다.

② 어린이란: 두음법칙. ‘란’과 ‘랑’은 앞에 한자어가 올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지만, 고유어나 외래어 다음에 올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‘난’과 ‘양’으로 적는다.

③ 채하다/적하다: ‘채하다’는 ‘관형사형 어미 뒤에 쓰여, 그러한 행동이나 상태를 그럴듯하게 꾸밈을 나타내는 말’로 보조용언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‘채하다’라는 보조용언은 없다. 대신 관형사형 다음 ‘그러한 상태를 유지하면서’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명사로는 사용할 수 있다.

⑤ 껍질채: ‘채’는 일부 명사의 뒤에 붙어, ‘그대로’ 또는 ‘전부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고, ‘채’는 의존명사이므로 체언 다음에 붙여 쓸 수 없다.

문 11. 다음은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 예들 중 일부이다. 아래 보기의 설명 가운데 이 예들을 통해서 알기 어려운 것은? 2014 서울시 9급

잇몸, 바닷가, 뒷일, 전셋집

- ①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,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날 때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.
- ②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, 뒷말의 첫소리 ‘ㄴ’, ‘ㄹ’ 앞에서 ‘ㄴ’ 소리가 덧날 때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.

- ③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,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‘ㄴㄴ’ 소리가 덧날 때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.
- ④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,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날 때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.
- ⑤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,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‘ㄴㄴ’ 소리가 덧날 때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.

[정답] ⑤

1. 영역: 사이시옷

2. 유형: 표기 원칙과 어원의 구별

합성명사에서 먼저 어원을 분석하면 ‘잇몸, 바닷가, 뒷일’은 순 우리말끼리의 합성이고, ‘전셋집’은 순 우리말과 한자어의 합성이다.

⑤ 예시 중 ‘뒷일’[뒀닐]은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 ③번의 예시에 해당된다.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,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‘ㄴㄴ’ 소리가 덧날 때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는 규정은 맞지만 어원상 ‘순 우리말과 한자어의 합성’은 아니다.

- ① 바닷가: 바다(순 우리말)+ 가(순 우리말)[바다까/바단까]
- ② 잇몸: 이(순 우리말)+ 몸(순 우리말)[인몸]
- ③ 뒷일: 뒤(순 우리말)+ 일(순 우리말)[뒀닐]
- ④ 전셋집: 전세(한자어)+ 집(순 우리말)[전세쩍/전센쩍]

문 12. 다음 중 띄어쓰기가 맞는 문장은? ( √ 는 띄어쓰기 부호) 2014 서울시 9급

- ① 옷√한벌√살√돈이√없다.
- ② 큰√것은√큰√것√대로√따로√모아√뒤라.
- ③ 강아지가√집을√나간√지√사흘√만에√돌아왔다.
- ④ 이√나무는√10√미터가√넘는다.
- ⑤ 합격했다는√말에√떨듯이√기뻐하였다.

[정답] ③, ④

1. 영역: 띄어쓰기

2. 유형: ‘품사의 통용’과 관련된 띄어쓰기.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이다.

③ 나간√지: ‘-ㄴ지’가 ‘막연한 의문’일 때는 어미이므로 붙여 쓰지만, ‘지’가 ‘시간의 경과’를 의미할 때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쓴다.

사흘√만에: ‘만’이 체언 뒤에 올 경우 ‘경과한 시간’을 의미할 때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쓰고, ‘한정’을 의미할 때는 조사이므로 붙여 쓴다.

④ 10√미터/10미터: ‘미터’는 단위성 의존명사이므로 수관형사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, 아라비아 숫자 다음에는 붙여 씀을 인정하기 때문에 띄어쓰기가 틀렸다고 할 수 없다.

- ① 한√벌: 단위성 의존명사 ‘벌’ 앞에 오는 ‘한’은 수관형사이므로 반드시 띄어 쓴다.
- ② 큰√것대로: ‘대로, 만큼, 뿐’이 관형사형 다음에 올 경우에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쓰지만, 체언 다음에 올 경우에는 조사이므로 반드시 붙여 쓴다.
- ④ 떨√듯이: ‘듯이’가 관형사형 아래일 경우에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쓴다. 다만 어간의 기본형 다음에는 어미이므로 붙여 쓴다.

문 13. 제시된 단어의 뜻풀이가 바르지 않은 것은? 2014 서울시 9급

- ① 궁도런님 : 부유한 집에서 자라나 세상의 어려운 일을 잘 모르는 사람
- ② 윤뚝뚝이 : 사리에 어둡고, 아는 것이 없는 사람
- ③ 책상물림 : 책상 앞에 앉아 글공부만 하여 세상일을 잘 모르는 사람
- ④ 두루치기 : 한 사람이 여러 방면에 능통함. 또는 그런 사람
- ⑤ 대갈마치 : 온갖 어려운 일을 겪어서 아주 야무진 사람

[정답] ②

1. 영역: 순 우리말

2. 유형: '사람'과 관련된 어휘

② 윤뚝뚝이: '자기만 혼자 잘나고 영악한 체하는 사람을 낮추어 이르는 말'이다. '사리에 어둡고, 아는 것이 없는 사람'을 뜻하는 말은 '바사기'이다.

문 14. 다음은 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들을 묶은 것이다. 이들 가운데 표준어가 아닌 예가 들어 있는 것은? 2014 서울시 9급

- ① 눈대중 - 눈어림 - 눈짐작
- ② 보통내기 - 여간내기 - 예사내기
- ③ 멀찌감치 - 멀찌가니 - 멀찍이
- ④ 녁쿨 - 덩굴 - 텅쿨
- ⑤ 되우 - 된통 - 되게

[정답] ④

1. 영역: 표준어 규정

2. 유형: '복수표준어'의 식별

④ '녕쿨'과 '덩굴'은 복수표준어이나 '텅쿨'은 표준어가 아니다.

문 15. 다음 문장들의 의미를 고려할 때 밑줄 친 부분을 한자로 순서대로 바르게 옮긴 것은?

2014 서울시 9급

그는 부정이나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한다.  
 그 집에 가면 부정을 탄다는 소문이 있다.  
 답이 무수히 많은 방정식을 부정 방정식이라 한다.  
 그의 대답은 긍정도 부정도 아니어서 혼란스럽다.

- ① 不淨- 不正- 不正- 否定
- ② 不正- 不淨- 不定- 否定
- ③ 不定- 不淨- 否定- 不定
- ④ 不眞- 否定- 不淨- 不定
- ⑤ 不眞- 不定- 否定- 不淨



문 18. 1930년대 문단의 상황에 대한 다음 진술 중 잘못된 것은? 2014 서울시 9급

- ① 김동리, 김유정 등 동반자 작가들이 활동했다.
- ② 예술성을 강조하는 순수 문학이 크게 유행했다.
- ③ 모더니즘 문학이 도입되고 다양한 기법이 실험되었다.
- ④ 전원파, 청록파, 생명파 등이 등장했다.
- ⑤ 일제의 탄압으로 카프(KAPF)가 해체되었다.

[정답] ①

1. 영역: 현대문학사

2. 유형: 1930년대 문단의 동향

- ① 동반자 작가: 소련의 공산주의 혁명 이후, 혁명에는 찬동하지만 마르크스주의나 프롤레타리아 문학에는 참여하지 않은 작가들. 우리나라에서는 1920년대 말 카프(KAPF)에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사상적으로 그들에게 동조한 작가를 일컫는데, ‘이효석, 유진오, 채만식, 박화성’ 등이 이에 속한다. ‘김동리’는 ‘인생파’에, ‘김유정’은 ‘구인회(예술파)’에 포함되고, 주로 순수문학의 성격을 띤다.
- ② 일제의 문단에 대한 검열로 예술성을 강조하는 순수 문학이 위주를 이루었다.
- ③ 모더니즘(주지주의, 이미지즘, 초현실주의 등)이 도입되었고, 20년대에 비해 다양한 기법이 실현되었다.
- ④ 전원파(30년대 중반: 신석정, 김동명, 김상용), 생명파(1936년: 서정주, 1937: 유치환), 청록파(1939년: 조지훈, 박목월, 박두진) 등이 등장하여 ‘유파 중심 시대’를 이룩했다.
- ⑤ 일제의 좌익에 대한 탄압으로 1935년 카프(KAPF)가 해체되었다.

문 19. 다음 시의 시상 전개 방식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? 2014 서울시 9급

머언 산 청운사(靑雲寺)/ 낡은 기와집  
 산은 자하산(紫霞山)/ 봄눈 녹으면  
 느릅나무/ 속잎 피어가는 열두 굽이를  
 청노루/ 맑은 눈에  
 도는/ 구름  
 - 박목월, <청노루>

- ① 시상이 시선의 이동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.
- ② 시상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.
- ③ 시상이 화자의 심리 변화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.
- ④ 시상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.
- ⑤ 시상이 점층적으로 전개되고 있다.

[정답] ①

1. 영역: 현대시

2. 유형: ‘시상의 전개방식’

박목월의 ‘청노루’는 시선의 이동 중 ‘원근법’에 의해 ‘원경’에서 ‘근경’으로 시선이 이동되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. ‘머언 산 청운사(원경)→‘비탈길에 선 청노루’→‘청노루 눈 속에 도는 구름(근경)’

문 20. 다음 중 괄호 안의 한자어가 적절히 사용된 것은? 2014 서울시 9급

- ① 가상(假像)현실에서는 실제로 경험할 수 없는 체험을 할 수 있다.
- ② 가시(可示)적인 성과보다는 내실이 중요하다.
- ③ 그의 작품에는 다양한 인생 편력(遍歷)이 드러나 있다.
- ④ 그 이야기는 과장(誇長) 없는 사실이다.
- ⑤ 삶에 대한 통찰(通察)이 묻어나는 말씀이다.

[정답] ③

1. 영역: 한자

2. 유형: 문맥에 맞는 한자어 표기

- ③ ‘편력’은 ‘여러 경험을 함’을 뜻하는 말로 ‘다양한 인생 편력이 드러나다’는 문맥에 맞게 쓰인 한자어다.
- ①번과 ⑤번은 ‘동음이의어’의 의미 구별이고, ②번과 ④번은 맞는 표기를 묻는 경우이다.
- ① ‘가상(假像)’은 ‘주관으로 그렇게 보일 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짓 형상’으로 유의어는 ‘허상(虛想)’이고 반의어는 ‘실상(實像)’이다. 반면에 ‘가상(假想)’은 ‘사실이 아니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을 사실이거나 실제로 있는 것처럼 가정하여 생각함’을 뜻하는 말이므로 문맥에 맞는 한자어는 ‘가상(假想)’이 되어야 한다.
- ② ‘가시(可示)’라는 단어는 없다. ‘눈으로 볼 수 있음’을 나타내는 한자어는 ‘가시(可視)’이다.
- ④ ‘과장(誇長)’이라는 단어는 없다. ‘사실보다 크게 부풀려서 나타냄’을 뜻하는 한자어는 ‘과장(誇張)’이다.
- ⑤ ‘통찰(通察)’은 ‘책이나 글 따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훑어봄’을 의미하고, ‘통찰(洞察)’은 ‘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환히 꿰뚫어 봄’을 의미하므로 문맥에 맞는 한자어는 ‘통찰(洞察)’이다.